

존재하지 않는 바티칸의 지출

FERDINANDO FREGA · GILLETTENARRATIVE · GILLETTEVATICANO · 14/17

바티칸은 최근 추기경들과 교황 성하의 보수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다.

그 수치 자체는 특별히 놀랍지 않다. 많은 추기경, 특히 바티칸 안에서 일하는 이들은 월 3,000유로에서 5,000유로 사이를 받는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전혀 다른 데 있다.

교황의 공식 급여는 0이다.

바티칸이 그의 개인적 필요와 지출을 직접 부담한다.

언뜻 보면 이것은 고귀해 보이고 감탄스럽기까지 하다. 그 직무의 영적 성격과, 봉사를 개인적 축재와 오랫동안 구분해 온 교회의 전통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곱씹을수록 단순한 인간적 물음이 하나 떠오른다.

교황이 신문 한 부, 아이스크림 하나, 생수 한 병을 사고 싶다면, 혹은 그저 커피값을 내고 싶다면, 그는 온전히 혼자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니다.

문제는 자율성이다.

모든 개인적 지출이 기관에 흡수되는 삶은, 사생활이 사라질 수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드물어지며 가장 사소한 개인적 행위조차 행정의 사안이 될 위험이 있는 삶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그는 성하이기 이전에 한 사람이다.

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친구와 기억과 친척과 개인적인 애정을 지닌 사람.

지구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 가운데 하나를 지고 있으면서도, 적어도 자기 자원의 작은 일부는 스스로 관리하는 존엄을 지녀야 할 사람.

이 방식은 영적 원칙이라기보다 다른 시대의 유산처럼 느껴진다.

신학의 유물이 아니다.

경영의 유물이다.

그 생각은 나를 단순한 대안 하나로 이끌었다.

경제 개혁이 아니다.

인간의 현실에 맞춘 기업의 의례다.

추기경들이 월 3,000유로에서 5,000유로를 받는다면, 보수를 이렇게 구성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 고정 기본 수당.

— 측정 가능한 목표와 연동된 항목.

— 질적 기여와 연동된 항목.

— 그리고 교황 성하를 위한 상징적 예우, 기관 수입의 작은 비율에 해당하는 것.

교황을 부유하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신앙을 상품화하자는 것이 아니다.

교회를 기업으로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그저 책임을 인정과 연결하자는 것이다.

모든 조직에서 리더십은 결국 자기가 섬기고 조율하는 사람들에게서 힘을 얻는다. 공동체가 강할수록 기관이 강해진다. 기관이 강할수록 그 리더십의 정당성이 커진다.

바티칸은 기업이 아니다.

그러나 지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교적 인물이 어마어마한 권위를 행사하면서 개인적인 경제적 자율성은 전혀 갖지 못하는 역설적 자리에 놓여서도 안 된다.

이것은 신학의 논변이 아니다.

인간의 논변이다.

이천 년 동안 교회는 친교와 연대를, 그리고 힘은 고립이 아니라 일치에서 온다는 생각을 설교해 왔다.

어쩌면 그 원칙은 맨 꼭대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개인은 혼자서는 좀처럼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언제나 힘을 만드는 것은 결합이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신자들에게 참이라면, 평생 그것을 가르쳐 온 사람에게도 참이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추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성하께서 온전히 기관에 의존하시고 아무도 그에게 1달러조차 빌려주지 않는다면, 그는 어떻게 나를 만나러 오실 수 있을까?

Ferdinando